

‘업계현안과제 해결에 최우선 중점뒤’ 2001 사업계획 예산 확정, 2월8일 총회 상정

우리 협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제6차 이사회를 열어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관련한 제사항 추진, 화주단체(SA)의 추가 구성 등 업계현안사업을 비롯하여 연수교육사업 등의 사업계획을 심의 확정하고, 수지예산(안)도 심의했다.

2001년의 협회 사업은 크게 업계 현안사업, 연수교육사업, 홍보출판, 국제사업 및 기타사업으로 구분되며, 현안사업의 주요 내용은 ○통관 취급법인 자격허용 추진, ○인천국제공항 관련 사항 추진, ○김포공항 유희시설 활용방안 추진, ○KASA 확대 추진, ○CASS제도 개선 추진, ○미국 FMC 등록업무 지원, ○남북한 운송망 연결 관련

참여방안 추진 등이다.

또한 연수교육사업은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산지역 회원사를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할 계획이며, 외국 협회와의 교류를 강화하는 등 국제사업도 활발히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1년의 수지예산은 가능한 지출규모를 줄여 지난해 대비 약 5% 증가한 7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러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은 오는 2월 8일에 개최될 예정인 정기총회에서 확정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속 실시 7개 과정 총 17회, 부산교육도 예정

복합운송업의 발전과 업계 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업무수행 능력제고를 위한 2001년도 우리 협회의 연수교육은 총 7개 과정으로 17회 실시되며, 부산교육 및 포워딩실무통신영어 과정도 개설될 예정이다.

또한 회원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받아 연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해상포워딩단과반(20시간) 및 기초반(종합반 - 60시간), 항공포워딩단과반(20시간) 및 기초반(종합반 - 56시간), 복합운송실무

중급반(72시간), 항공위험품취급반(20시간), 무역실무반(20시간) 등 모두 7개 과정이며, 해상포워딩부산교육 및 포워딩실무통신영어과정도 추가로 개설된다.

해상 및 항공단과반은 각각 4회 실시되며, 해상기초반 3회, 항공기초반 2회, 복합운송중급반 1회, 항공위험품취급 1회 및 무역실무 2회 등 모두 17회 실시된다(18편 자료 참조).

한편 지난해 협회 연수교육은 총 7개 과정 19회 실시되었으며, 791명이 수강하여 751명이 수료하였는데 1회 교육 평균 42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00년도 연수교육 실시 현황

구 분 교육과정		교육 계획			수 강 인 원				비고 (1회평균인원)
		회(回)	인 원	합 계	회(回)	합 계	수 료	미수료	
단과반	해 상 포 위 덩	5	54	270	5	257	246	11	51.4명
	항 공 포 위 덩	4	54	216	4	191	186	5	47.8
	항 공 위 험 품	2	40	80	2	25	22	3	12.5
	무 역 실 무	3	54	162	2	71	66	5	35.5
기초반	해 상 포 위 덩	3	54	162	3	136	129	7	45.3
	항 공 포 위 덩	2	54	104	2	79	72	7	39.0
중급반	복합운송실무	1	40	40	1	32	30	2	32.0
합 계(7개 과정)		20		872	19	791	751	40	41.6

**“고속도 통행료 사업자 제시가보다 낮게 책정돼”
공항 개항관련 물류비 절감방안 건의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연육교 통행료 할인 등 물류비 절감방안 건의에 대한 우리 협회의 건의에 대해 연육교 통행료의 경우 당초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낮게 책정되었으며, 할인은 공익을 위한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 원칙이며 타 이용객과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우리 협회는 수출입 항공화물을 원활하게 취급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에 화물취급과 관련된 많은 업계의 종사자가 상주하게 되고 승용차 또는 화물차량의 통행이 불가피하게 되어 현재 예상되는 통행료만으로도 상당한 물류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상주차량(승용차 및 화물차)에 대해서는 일반차

량과 구분하여 연육교 통행료를 할인하여 줄 것을 지난해 10월 6일 건교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추진된 민자유치시설 1호 사업으로서 민간사업자가 1조 4,776억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총 연장 40.2km를 건설하고 향후 30년간 통행료 징수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으로 당초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통행료 8,900원(승용차 기준)보다 낮은 6,100원으로 확정하였다고 회신했다.

또한 화물터미널내 주차장 통제소가 남북으로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주차료 이중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일원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으며, 주요 건의 및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 행	문 제 점	건의 사항	회 신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육교 통행료(예상) - 화물차 : 14,000원 - 승용차 : 7,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비 및 통행료등의 발생으로 복운업체 부담가중 및 물류비 상승 - 수출입항공 화물을 원활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종사자 및 회사의 차량(승용/화물)은 반드시 연육교를 최소한 매일 2회이상 통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비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운업체 인천공항에 상주차량(승용/화물)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일반차량과 구분하여 할인혜택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치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터미널내 주차장 이용시 주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터미널내 주차장 통제소가 남·북으로 별도 설치되어 있어 주차료 이중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터미널내 주차장 이용시 주차료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원화 방안 검토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기본 칸막이 설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나항공 및 외항사에서는 사무실 기본 칸막이 설치비용을 입주사에게 부담시키고 있음 - 대한항공은 자체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기본칸막이를 임대사업자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료에서 칸막이 설치비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내부순환도로 (폭3m) - 피난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기본칸막이를 설치해주는것이 일반적인 관행임. ○ 상주직원의 차량이용시 교통혼잡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확장(폭6m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단계에서 추가확장은 예산 사정상 곤란한 실정이나 향후 운영단계에서 사용실적등을 보아 확장 여부검토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운업체 화물창고 시설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조업(Labeling, 통관, 보관, BUC작업)을 위한 복운업체의 창고 시설 부족으로 물류지원 및 물류비용 상승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운업체가 창고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2단계사업 고시에 반영 또는 김포화물터미널 창고할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시설건설시 검토예정이며 김포공항은 한국공항공단과 협의바람

구주항로 화주단체(KESA) 구성키로 미주항로 KASA의 순항 결과에 따라

해상운송인(선박회사)과의 우대운송계약(Service Contract) 체결에 따른 보다 유리한 운임을 화주에게 제공키 위해 국내복합운송업체의 화주단체가 북미항로에 이어 구주항로에도 결성된다.

우리 협회는 지난해 5월에 결성된 북미항로의 KASA(Korea-America Shippers' Association)에 이어 구주항로에도 KESA(Korea-Europe Shippers' Association)를 오는 3월경에 조직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주지역 화물을 취급하고 있는 회원사가 이 단체에 가입할 경우 보다 낮은 운임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고객인 화주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북미항로의 KASA(위원장 임병욱)는 오리엔트익스프레스를 비롯한 회원사 42개사가 가입하여 현대상선을 비롯한 7개 선사와 S/C를 체결하여 활발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화물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3차 경신 보험료 3% 인하, 3%내의 합의지원금 도입

우리 협회는 지난 '99년보다 3% 추가 인하되고, 보험가입자(회원사)가 클레임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보험금의 3%를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합의지원금 담보를 추가 도입하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을 체결했다.

우리 협회는 지난해 11월 4일 현대해상을 비롯한 쌍용화재, 동양화재, LG화재 등 손해보험회사 4개사와 제3기 단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존의 보험료율보다 추가로 3% 인하조정함과 아울러 합의지원금 담보를 새로이 도입했다.

합의지원금담보란 화물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의 경우 클레임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피험자(보험가입자)가 협조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보험금의 3%를 300만원 한도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피보험자 B/L상의 책임한도액이 화물실제 손해액의 70%를 초과하여야 하고 피보험자나 화주가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이며, 소송인 진행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보험료의 추가 인하로 연간매출액 8억원 이하인 회원사가 자기부담금(공제금액) 500만원을 선택할 경우 연간 97만원의 보험금으로 사고당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회원사의 약 53%가 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김포-인천공항간 통근버스 운행

오는 3월말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에 따른 회원사 임직원의 복지증진 및 출퇴근을 용이하게 지원하기 위해 출퇴근 전세버스가 운행된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6,100원-승용차)와 대중교통버스운임이 상당한 금액(편도 약 5,000원 이상)에 이르러 회원사 또는 임직원의 부담액이 너무 클 것으로 예상돼 김포공항-인천공항간 통근버스를 운행하기로 하고 이를 조사한 결과 약 700여명이 이 버스를 이용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김포공항 송정역 앞에서 오전 7시부터 약 5분간격으로 출근버스를 운행하며, 퇴근은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내에서 오후 6시 10분경부터 8시50분까지 17대의 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 협회에서는 오는 2월까지 전세버스사업자 선정을 입찰공고에 의할 계획이며, 회원사 임직원의 이용 요금은 왕복 5,0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물류대학 개설 오산대학과 산학협동, 2월10일까지 지원

우리 협회는 우수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산

학협동 차원에서 오산대학(학장 김연수)의 협조

하에 2001학년도 직장인물류대학을 물류업계 최초로 개설한다.

이번에 개설하는 직장인물류대학은 교육의 전문화·사회화·개방화와 평생교육의 지향에 따라 국가와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21세기 미래의 고도산업 사회에 적응할 우수한 산업인력을 양성하고자 고등교육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무시험전형으로 이 대학에 입학하여 정규과정을 이수한 후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로 복합운송업체 종사자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한 것이다.

이 대학의 학사관리는 오산대학의 학칙에 따르며, 졸업시 오산대학 학력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 또한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협회는 지원자가 20명 이상일 경우 오산대학과 정식으로 산업체위탁교육을 체결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5인 이상의 산업체에 근무중인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 △산업체에서 통산 1년 6개월이상 근무경력자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입학원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확인서류 등을 갖추어 2월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우리 협회와 오산대학이 산학협동으로 개설하는 직장인물류대학은 공업경영과로서 교양 및 전공 필수과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은 물류·유통·무역 전반에 관련되는 교과목을 편성할 방침이며, 교육장소는 오산대학 서울교육장(강남구 삼성동 151-7)이나 협회 교육장(종로구 적선동 80)에서 실시토록 하여 입학생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입학생 전원에게 매 학기당 30만원 가량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한 성적장학금을 별도로 지원하는 등 복합운송업체 소속 입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보세장치장 설명회 성황리에 열려 투자확약서 제출은 저조해 일부 변경 불가피

우리 협회는 김포공항내 복합운송업계 전용보세장치장 추진 설명회를 지난해 12월 7일 협회 연수실에서 개최하여 업계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사업은 화물보관, 통관, 보세운송, 화물인도 등 일관수송체계 확립과 대(對)화주 Total 운임 제공을 통한 국가물류비 절감 및 대외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장치장 규모는 약 5,

670평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1월 30일 투자확약서 제출기일을 경과한 현재 투자확약서 제출업체는 예상외로 저조하여 복운업계의 염원인 공항내 보세장치장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설명회에서 제기된 장치장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